◈며느리 권씨 열전 11-2

윤휴(尹鑴,1617-1680)의 부인

정경부인 권씨 (추밀공파24世, 권첩權怗의 딸)

윤휴와 권씨부인 묘비석

당시 인맥관계와 애증

당시 현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거의 복잡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훗날 서로 존경하면서도 죽고 죽이는 당파적(노론,남인,소론) 문제로 애증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유천(대전시)의 새집에서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하여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전을 반복해서 연구하고 밤낮으로 사색하여 그 귀추를 탐구하기를 오래하자 일관된 이치가 마음에 얼음이 풀리듯이 환히 드러나 의혹되거나 막히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다."라고 '백호전서(白湖全書)'에 전한다. 호서사림과의 혼맥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윤휴의 아내는 권시의 일족인 권첩(權帖)의 딸이며, 큰 아들 윤의제는 권시(權諰, 1604-1672)의 사위이자, 윤선거(尹宣擧, 1610-1669)의 아들 윤증(尹拯,1629-1714)과는 동서지간이다. 권시의 둘째 아들 권유(權惟)는 송시열의 사위로 이들 윤휴, 권시, 송시열은 삼각관계의 사돈을 이룬다. 권시와 권첩은 23世로 13世 권보(權溥)의 후손이다.

이순신의 서녀(庶女)가 권씨 부인의 시아버지 윤효전(尹孝全,1563-1619)의 측실(妾,덕수 이씨)이고 그 소생은 이순신(李舜臣,1545-1598)의 외손자로 윤영(尹鍈,1611-1691)이니 권씨부인의 시아주버니이고 이순신이 시외할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윤영의 부인이 그 유명한 오리 이원익(李元翼,1547-1634)의 서녀이다. 윤증의 큰 아버지 윤문거(尹文擧,1606-1672)는 송시열과 사돈지간이며, 송시열 아들(양장자) 송기태(宋基泰)의 생모(송시열 사촌형 宋時瑩의 부인)는 윤선거의 사촌 여동생(尹烇, 1575-1637의 딸)이다. 이렇듯 이들 가문은 서로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윤증 소론의 거두

여기서 윤문거(파평윤씨 24世)의 동생이 윤선거(尹宣擧,1610-1669)이고 그 아들이 윤증(尹拯, 1629-1714)이다. 윤문거의 후손중 10世 후에 나타난 인물이 윤기중(尹起重,1931- , 연세대명예교수, 前한국경제학회장,학술원회원)이며 그의 아들이 윤석열(35世)이다. 이 또한 새겨볼 일이다.

여기서 안동권씨족보에는 윤휴가 파평윤씨로 나오지만 그것은 오류이고 윤휴의 동서 즉 권씨부인의 사위가 '임수'라고 나오지만 임유(林潍)가 맞다. 권씨족보(2002년 한글판 대동세보)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나 20년이 흐른 지금 그 전산상 프로그램 등에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 언젠가 그 소스코드를 개방하거나 양도 한다면 그것을 '해피트리(HAPPY TREE)'등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최초 족보 성화보(成化譜)를 만든 권문의 전통을 살리는 날이 오리라 기대한다.

16세기 후반에 붕당의 사회적 분위기는 17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다. 흔히 말하는 붕당 간의 제사불참, 혼인불통, 학문불통이라는 '삼불(三不)'은 17세기 중반까지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었다. 당쟁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당쟁이 사회적 현상으로 뿌리박기 시작하는 것은 윤휴가 사문난적으로 지목되고 부질 없는 예송논쟁이 격렬해지고 죽고 죽이는 막장 드라마로 발전하니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만 것이다. 특히 북벌론은 송시열의 주장으로 변조되었고, 이는 곧 일제 강점기에 무장투쟁론과 역량준비론과 비슷한 것으로 비유된다.

※참고: 탄옹 권시 선생 계보

24世권시(權諰)-23世권득기(權得己)-22世권극관(權克寬)-21世권덕유(權德裕)-20世권홍(權弘)-16世권영(權齡)-15世권실(權實)-14世권순(權循)-16世권숙(權肅)-15世권[왕]중귀(權[王]重貴)-14世권[왕]후權[王]煦)-13世권보(權溥)

권씨부인 자손

장남 윤의제(尹義濟, 1640년 ~ ?)는 교리(校理,5품)이고, 후사가 없고 부친 윤휴의 사형 뒤에 유배가서 사망했다. 부인은 권시의 딸이며 윤증과는 동서지간이다.

차남 윤하제(尹夏濟)는 현감(면장), 삼남 윤은제(尹殷濟), 사남 윤륭제(尹隆濟)는 '진사(進士.사실상 명예직)'이다.

오남 윤경제(尹景濟)는 별제(別提, 6품 명예직)이고 사위 이수길(李樹吉)도 별좌, 임유(林潍)와 민진유(閔鎭維)는 진사이다.

즉 자손들은 윤휴 사후에 그저 목숨만 붙었을 뿐이고 이후 남인집권시 복권 되었다가 노론 집권시 파기되고, 이후 정조대왕이 윤휴를 알아보고 다시 복권 그런데 이 수구적인 세도세력 안동김씨 일파에 의해 다시 삭탈되고 아이러니컬 하게도 매국노 이완용이 민심수습 차원인지는 모르나 다 망해가는 나라 대한제국 말기 1907년에 복권을 시킨다. 안동권씨 '능동실기'와 '시조묘소정비', '항렬제정'등이 을사오적 권중현에 의한 것과 비견되는 일이다. 권씨 부인의 아들,사위는 그저 평범했다고 봐야하고 5世에 내려가서야 사실상 사면되고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아갔다고 보면 된다.

권씨부인과 친정

기록에 '부인은 현숙한 덕행을 지녔으니 50년 동안 규범을 지켜오면서 예절에 어긋난 것이 없었고, 비복(婢僕)들을 거느리고 일가 사람들을 어루만짐에 있어서 곡진히 은덕을 베풀면서 급한 말을 하거나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곤궁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으므로, 온 집안의 친척들이 모두가 군자의 배필이 될 만한 분이었다.'고 칭찬한 글이 있다고 하니 그녀는 70세 정도 까지 생존 하였다고 본다.

부친은 권첩(權怗,1573-1629추밀공파 23世)이다. 동리공(東里公)이라 한다.

권첩은 조선 중기 광해군-인조 때 활동한 문신. 자는 정오(靜吾)이고, 호는 동리(東里)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병조 판서 권징(權徵)의 아들이고 이효언(李孝彦)의 외손자이다. 또 김집(金集)의 사위이며 백호(白湖) 윤휴(尹鑴)의 장인이다.

1616년(광해군8) 증광(增廣)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정랑에 임명되었고, 영건도감(營建都監)의 일을 맡아 보았다.

호조·예조 낭관(郎官)을 거쳐, 영건도감 도청(都廳)으로 승진하여 토목 영선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던 광해군은 권첩을 평안도 선천부사(宣川府使)로 특별히 임명하여, 모문룡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해 서북 지방의 불안을 없애도록 하였다.

호조 참의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주청사(奏請使)의 부사가 되어, 정사이덕형(李德馨)과 함께 해로(海路)로 중국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여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으며, 장예원(掌隷院) 판사(判事)를 역임하였다. 1628년(인조6)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는데, 병이 나서 1629년(인조7)년 경주 관아에서 죽으니 향년 57세이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廣州) 둔되리(遁退里) 선산(先山)에 있으며, 유계(俞棨)가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

권씨부인의 오빠는 권준(權儁,1633-1665)이다. 자는 수부(秀夫) 호는 초수(樵叟), 생원 19위 합격, 시서(寺署)참봉,의금부도사,호조낭관,밀양부사,간성군수, 병자호란 이후 청계산 월천에 은거, 윤선거(尹宣擧)가 행장을 짓고 묘소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능안 선산 입좌이다.

윤휴와 정경부인 권씨묘소

권씨부인 조상

24世(권씨부인/오빠權儁)-23世 권첩(權怗)-22世 권징(權徵)-21世 권굉(權硡)-20世 권우(權愚)-19世 권활(權佸)-18世권반(權攀)-17世 권제(權踶)-16世권근(權近)-15世권희(權僖)-14世권고(權皐)-13世권보(權溥)-12世권단(權袒)-11世권위(權韙)-10世권수평(權守平/추밀공파조)

권씨부인의 조부는 권징(權徵,1538-1598)이다. 20살에 식년시 생원3등, 24살에 별시문과 병괴 10인 급제, 예문관,홍문관 수찬,승지,강원도관찰사,호조참판,자헌대부등 고관직, 임진왜란시 1등 호종공신등 송시열이 신도비문을 짓고 시호가 정익공(貞翼公)이다.

권씨부인의 증조부는 권굉(權硡)으로 충좌위부사과이고 조광조 문하에서 수학,기묘사화후 관직 나가지 않고 도학(道學)공부를 한다. 1568년 선조1년에 졸하니 이조판서, 충정공(忠定公)으로 시호를 내린다. 아들 권징이 귀히되니 영의정으로 추증된다. 증 정경부인 청주 한씨이다. 성남시 금토동에 묘가 있다.

권씨부인의 고조부 권우(權愚)는 영가군(永嘉君), 원주목사, 형조정랑(법무부 인사국장), 이후 손자 권징이 크게되니 가선대부 대사헌으로 추증했다. 증 정부인 연일 정씨는 별제 정보(鄭溥)의 딸이다. 모두 성남시 금토동에 묘가 있다.

권씨부인의 현조부 이상은 워낙 유명인이고 본편에서도 많이 소개하여서 생략한다.

여기서 충청 지역의 조선시대에 있어서 시대적 역할이나 그 의미는 송시열로 시작해서 송시열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듯 4대 당파중 가장 실리적이라 인정되는 소론의 윤증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 그 화해의 장을 구체화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지난 2월 은진송씨와 파평윤씨의 화해의 장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알수가 없다, 이제 안동권문의 탄옹 권시 선생과 윤휴의 부인 권씨 며느리의 권징 선생(성남시 금토동)의 가계가 대통합의 기운을 가져오고 또 권문의 또 다른 명문 봉화, 춘양의 권벌 선생의 명문가가 봉화의 특징인 반상(班常)의 차별이 적고 좌우(左右)파가 없던 그 화해와 화합의 기운이 이 땅에 넘쳐날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권씨부인의 명복을 제삼 빌고 성남은 가까우니 한 번 찾아 보는 것도 권문의 일원으로서 도리이고 이런 스토리를 후손에 들려줌은 그 무엇보다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제 '윤휴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의 선구자적 발언을 소개한다. 물론 그는 이를 구실 삼은 기득권의 억지와 기만 그리고 지도자(숙종)의 오만과 변덕에 의해 그 빛은 사라졌고 그 뒤 온 것이 민족적 비극의 연속인 것이지만 말이다. 숙종도 대 기근을 딛고 정통성을 가지고 왕권을 세우고 역사바로잡기를 한 공로가 있다.

天下許多義理,豈朱子獨知而余不知耶, 又曰, 姑置朱子,只論義理而已,朱子復起, 則吾說屈, 必須孔孟復起然後,吾說乃勝.

"천하의 허다한 의리를 어찌 주자(朱子) 홀로 알고 나는 모르겠는가." 또 말하기를 "우선 주자를 놓아두고 다만 의리를 논할 뿐이다. 주자가 다시 온다면 곧 나의 학설이 억눌리겠지만 모름지기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가 다시 돌아온 연후에는 나의 학설이 이길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대전종친회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및 영월 장릉 참배

대전종친회(회장 권용기)에서는 제52회 정기총회를 6월 18일 권용기 회장과 권동원 참의 공종중이사장(고문), 권선상 수석부회장, 권명호 사무국장, 권정순 총무이사를 비롯하여 각 소종중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매년 개최되는 뿌리공원 가을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장은 종원들의 마음을 모아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야유회와 함께 치러진 관계로 영월에 위치한 단종대왕의 장릉(莊陵, 사적 제196호)을 참배하기도 했다.

장릉은 비운의 왕으로 알려진 제6대 단종(1441~1457)의 능으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부정공파, 16세)는 안동권씨이다.

단종은 태어난 지 삼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10세 때인 1450년 아버지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문종이 왕에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사망하는 바람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계유정란이라는 정치적 격변으로 세조에 의해 쫓겨나 영월에 유배되었다.

장릉 참배를 마친 일행은 주변의 고씨동굴과 '한반도 지형'을 관광했다. 한반도 지형은 한반도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반도지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도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전종친회장 권용기

안동능우회 격월 6월회의 코로나로 3년 만에 개최

권기현 능우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능우회(회장 권기현) 격월 6월 월례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되어 오다가 3년 만에 개최하였다.

6월 14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조식당'에서 회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월 6월 회의가 개최되었다.

권오갑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 만에 회원들을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다"며 "오늘 저녁에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빈다"고 말했다. 능우회장을 역임한 권영택 정조공파회장은 "여러분의 덕택에 정조공파 권기창 후보를 안동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당선자는 앞으로 안동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마와 싸우다 건강을 완전 회복한 권혁철 전 능우회장도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건강이 회복되어 고맙다"고 인사했다.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안동 권씨인 단종의 어머니 기일 때 능우회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 놓았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만난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후식으로 안동식혜와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나와 모두들 즐거워 했다. 이 자리에서 능우회 2대 회장을 역임한 권영준 박사(전 안동대 교수)는 안동권씨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에 관한 비사도 들려주었다.

능우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3년 동안 연장자의 순위에 따라 능우회장이 3명이나 바뀌기도 했다. 능우회 회의는 격월제로 두 달 만에 한 번씩 짝수 달에 모이고 있다. 능곡회원 가운데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능우회에 가입되는데 현재 능우회원은 31명이며 능곡회원은 1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능곡회 주관으로 경기도 양주시 행주산성 문화탐방을 할 때 능우회가 후원금 30만원을 능곡회에 지원하자 답례품으로 타월이 전달되어 이 타월 1장씩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